

관광명소 _ 다양한 얼굴을 가진 곳 니시노미야(西宮)



● 호라이코 (蓬萊峽)

야마구치초(山口町) 후나사카(船坂)에 위치하며, 몇 십만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대규모 화강암 조각입니다. 대검(大剣), 소검(小剣), 병풍암이라 불리는 크고 작은 기암괴석이 있으며, 일출과 함께 빛과 그늘의 대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세토(瀬戸)내해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 마루야마(丸山) 저수지

니시노미야 북쪽에 위치하며, 마루야마(丸山)와 하타야마(畑山) 사이를 흐르는 후나사카(船坂)강을 막아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총저수량 약 240만 m³으로, 호수 주변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호수 수면에 아름답게 비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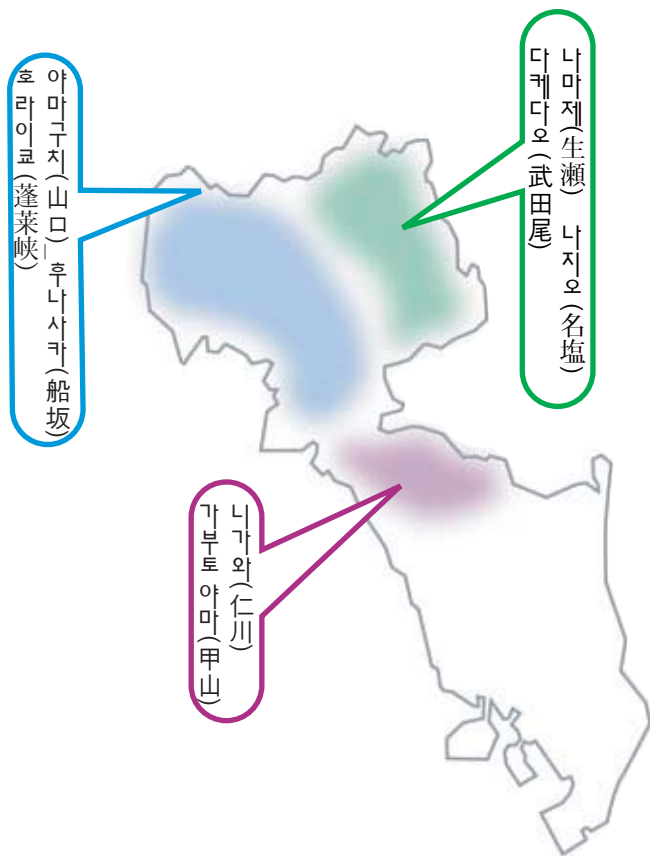
● 조코지(浄橋寺)

시오세초(塩瀬町) 나마제(生瀬)에 있으며, 가마쿠라()시대(1192_1333년)에 창건된 격조 높은 절입니다. 본존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상)과 료와키지(兩脇侍)상, 중등 귀중한 보물과 문서가 다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코가와(武庫川) 상류의 나마제 다리도 사찰 창립자의 가르침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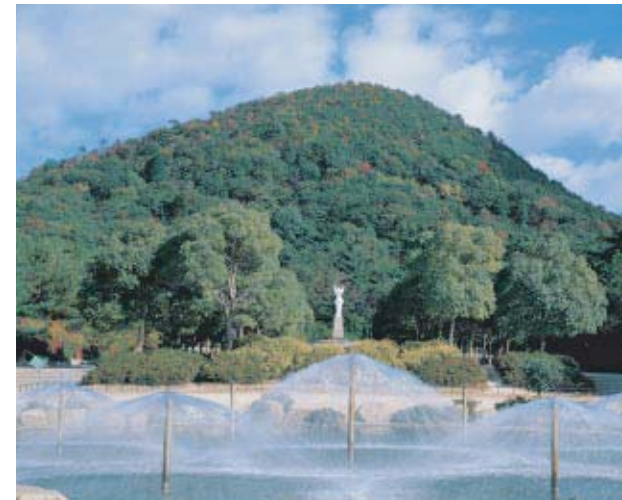
● 다케다오(武田尾) 온천

무코가와(武庫川)의 맑은 물이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케다오 온천은 JR후쿠치야마(福知山)선 다케다오역보다 약간 상류에 있습니다. 에도(江戸)시대(1603_1867년)에 나시오(名塩)의 다케다오 나오후(武田尾直藏)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며, 사계절에 따라 각각 변화하는 자연은 그야말로 니시노미야의 안방으로 제격입니다.



● 고치 신사(公智神社)

제신은 나무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구구노치노카미(久能智命)이며, 경내에 있는 모밀잣밤나무와 참가시나무는 니시노미야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니시노미야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미코시덴(神輿殿)은 불교건축의 특색을 엿볼 수 있으며, 신도(神道)와 불교의 절충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가부토야마(甲山) 삼림 공원

가부토야마 산기슭에 위치하며, 약 83ha에 이르는 삼림공원입니다. 호고현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70년에 개장했습니다. 들새가 많이 찾아오며 경기도 신선하여 삼림욕에도 제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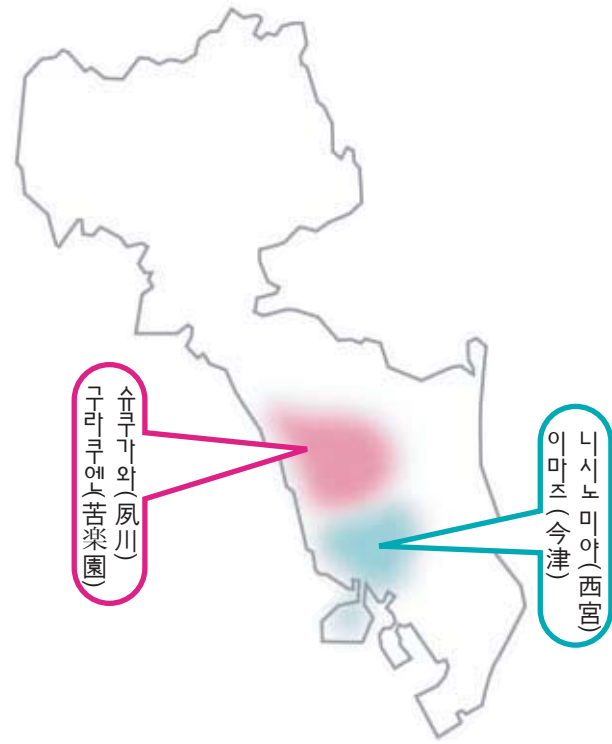
● 간노지(神呪寺)

가부토야마 산기슭에 있는 오래된 절로 시내를 전망할 수 있으며, 하이킹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본존인 「여의륜관음좌상(如意輪觀音座像)」은 일본 3대 여의륜관음 중 하나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입니다. 매년 5월 18일 하루동안만 공개됩니다.



● 슈쿠가와(夙川) 공원

약 2.7km의 강 양옆으로 벚나무와 소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자연의 오아시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나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한신(阪神; 오사카 및 고베) 지역 유수의 명소입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보이는 가부토야마의 풍경은 진한 운취를 자아냅니다. 1990년에 「일본 벚꽃 명소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 니시노미야시 오타니(大谷)기념 미술관

그림책 원화전 등 독특한 미술활동을 펼치고 있어 멀리서 찾아오는 관람객도 많은 미술관입니다. 고 오타니 다케지로(大谷 竹次郎)씨로부터 토지, 건물, 미술품을 기증받아 1972년에 개관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차분한 분위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의 전당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술박물관

고 사사베 신타로(笹部新太郎)씨의 「니시노미야시 사사베 사쿠라컬렉션」 등을 전시하는 기념관에 더하여 1998년 메이지시대의 사카구라(酒藏; 양조장)를 전시한 「술박물관」이 오픈했습니다. 사카구라관에는 가마바(釜場; 쌀 찌는 곳)와 후나바(槽場; 술 짜는 곳) 등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고시키와 신사(越木岩神社)

구라쿠엔(苦楽園)의 돈대에 있으며, 니시노미야 신사와 동일한 에비스노미코토(蛭子命; 상업의 수호신)를 모신 신사입니다. 경내에 무성하게 핀 히메유즈리하(굴거리나무의 일종)는 효고현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며, 오카게오도리즈에마(おかげ踊り)囃絵馬는 니시노미야시가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높이 10m의 시루 바위는 여성의 수호신으로 유명합니다.



● 니시노미야 포대

고로엔하마(香櫨園浜)에 있는 원통형 석조 포대입니다. 흑선(에도막부 말기 서양의 배를 일컬음)의 내항에 대비하여 가쓰가이슈(勝海舟)의 건의에 따라 에도막부가 1866년에 지었으나 얼마 뒤 메이지유신이 일어나 실제로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국가 지정 사적입니다.



● 니시노미야대학교와 요트 하버

호리에 겐이치(堀江 謙一)씨가 1962년 홀로 태평양 항해를 위해 출발한 항구로 유명한 간사이 유수의 요트 하버입니다. 니시노미야대학교는 시내와 니시노미야하마(西宮浜)를 연결하며, 총길이는 590m입니다. 1995년에는 니시노미야하마 4초메(4丁目)에 신니시노미야(新西宮) 요트 하버가 완공되어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 고로엔하마(香櫨園浜)

한신(阪神; 오사카 및 고베) 지역에 남아 있는 귀중한 모래사장입니다. 휴일에는 물놀이나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얇은 여울에서 쉬는 새와 조개, 게, 물고기, 해초 등이 사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 히로타 신사(廣田神社)

신메이즈쿠리(神明造り) : 중앙에 계단이 있으며 땅을 파서 지붕을 세움)라 불리는 건축양식의 아름다움이 유달리 눈길을 끄는 히로타신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신사 중 하나입니다. 경내에 자생하는 고바노미쓰바쓰쓰지(철쭉의 일종)는 매년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호고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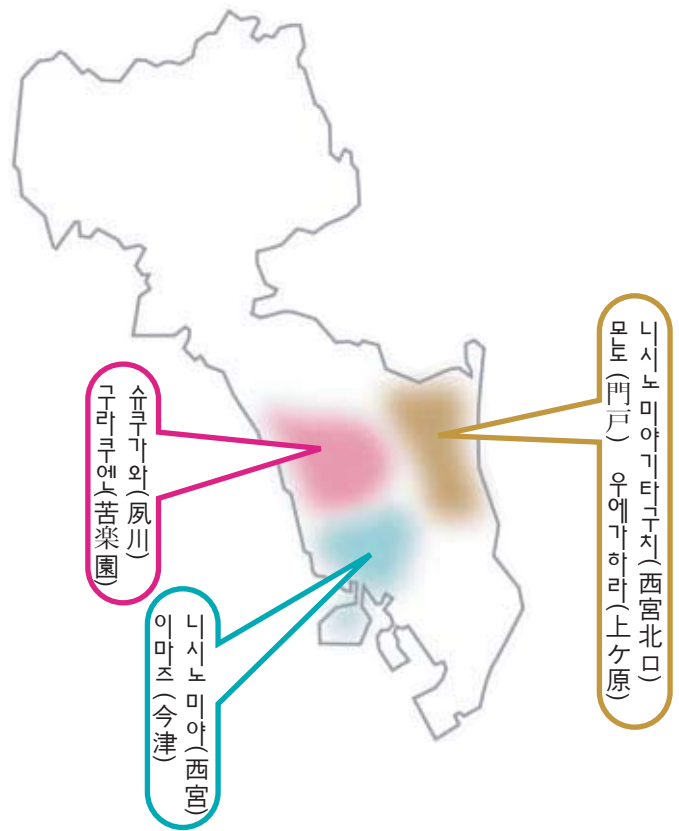
● 몬도야쿠진(門戸厄神)(東光寺(도코지))

일본 삼체 액신(厄神) 중 하나로 1월 18_19일 첫 액신에는 많은 사람들이 42단의 남자 액의 고개, 33단의 여자 액의 고개를 올라가 액귀를 쫓아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본당에는 약사여래가 모셔져 있습니다.



● 고토(甲東) 매화숲

고토 공민관의 정원에 있으며, 한신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매화 명소입니다. 백매화, 흑매화 등 39품종, 약 200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에 열리는 「매화 개화」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 벚꽃의 만치다니(満池谷)

봄이 되면 만치다니 모지 주변에서는 약 600그루의 사쿠라가 꽃을 피웁니다. 꽃구경 시즌에 개방되는 고시미즈(越水) 정수장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오사카 조폐국의 벚꽃에도 지지 않을 만큼 품종이 많으며, 니시노미야의 아름다운 길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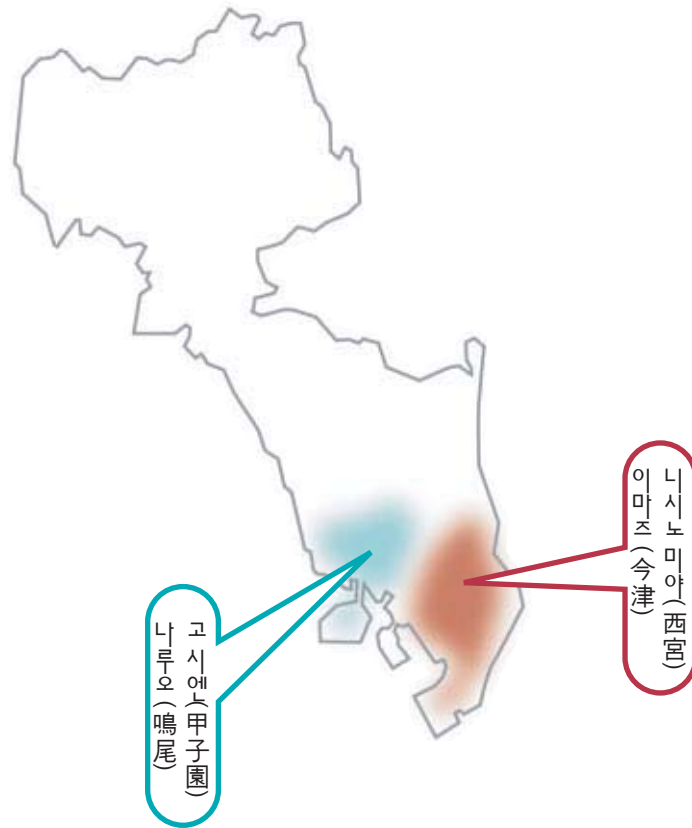
● 니시노미야 신사(西宮神社)

상업번창과 복을 부르는 신 「에벳산」의 총본산으로 1월의 도카에비스(十日戎)에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경내의 토담이나 대문 등 국가, 현, 시가 지정한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 무코가와(武庫川) 사이클링 로드

무코가와 고수부지의 소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이치리야마초(一里山町)에서 히가시나루오초(東鳴尾町)에 이르는 총길이 7.1km의 사이클링 도로입니다. 휴일에는 「푸른 신호등 프리웨이(계속 푸른 신호등을 켜서 서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함)」를 실시하며,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북적거립니다. 조깅 코스도 있습니다.



● 이마즈(今津) 등대

이마즈항의 상징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등롱 모양을 한 목조 등대입니다. 에도시대(1603_1867년) 후기 1810년에 축조되었습니다. 사용중인 등대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며, 지금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 고시엔(甲子園) 구장

1924년에 지어진 고시엔구장은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의 홈그라운드이며, 전국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선망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갑자(甲子)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고시엔(甲子園)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년 가을에 시립 초중학교 연합체육대회가 열려 니시노미야 시민과도 친숙한 구장입니다.